

**전체 산재사망자 수는 감소하였으나,
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(억) 이상보다
50인(억) 미만 기업에서 더 크게 감소하여
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.**

– 50인(억) 이상 기업, '22년은 오히려 증가, '23년 3분기까지는 소폭 감소

1. 주요 기사 내용

- 2.8.(목) 경향신문(인터넷), “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의문제기한 윤대통령... 노동계 ‘거짓말’”, 한겨레(인터넷), ““중대재해법 뒤 긍정적 결과 없다’ 윤대통령 발언은 틀렸다”, JTBC, “윤 대통령 “중대재해법 효과 입증 안돼”... 노동계 “지난해 사망 가장 적어”

2. 설명 내용

- 중대재해처벌법은 '22.1.27. 50인(억)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 만큼 단순히 전체 사망자수 증감으로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되며, 50인(억) 이상과 미만의 사고사망자 수를 비교하여야 함
 - '22년의 경우 전체 사고사망자 수(644명)는 전년대비 39명 감소 ($\triangle 5.7\%$)했지만
 - 50인(억) 미만은 전년 대비 47명 감소($\triangle 10.8\%$)한 반면, 50인(억) 이상은 전년 대비 8명 증가($+3.2\%$)
 - * 전체 : ▲'21년 683명 → ▲'22년 644명 (39명 감소, $\triangle 5.7\%$)
 - 50인(억) 미만 : ▲'21년 435명 → ▲'22년 388명 (47명 감소, $\triangle 10.8\%$)
 - 50인(억) 이상 : ▲'21년 248명 → ▲'22년 256명 (8명 증가, $+3.2\%$)
 - '23.3분기까지의 경우 전체 사고사망자 수(459명)는 전년 대비 51명 감소($\triangle 10.0\%$)했지만
 - 50인(억) 미만은 전년 동기 대비 13.3% 감소($\triangle 41$ 명)한 반면, 50인(억)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5.0% 감소($\triangle 10$ 명)에 그침

* 전체: ▲'22.3분기 510명 → ▲'23.3분기 459명 (51명 감소, △10.0%)
 50인(억) 미만: ▲'22.3분기 308명 → ▲'23.3분기 267명 (41명 감소, △13.3%)
 50인(억) 이상: ▲'22.3분기 202명 → ▲'23.3분기 192명 (10명 감소, △5.0%)

□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인 만큼, 규제·처벌만으로 획기적 감축은 어려우며 적극적인 예방지원 정책, 의식·문화 개선 등이 효과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연 (044-202-8950)
		담당자	서기관	용운서 (044-202-8951)

